

공 개



의안번호	제 56 호
보 고 연 월 일	2021. 12. 8. (제 22 차)

보
고
사
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1. 12. 8.

1. 보고주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를 개정(21. 9. 10. 의결)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배경

□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추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현행 재무 보고는 거의 대부분 추정에 기반*한다고 해도 무방

* 회계추정이 필요한 거래: 금융자산의 손상 측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충당부채·우발부채 관련 지출에 대한 추정

○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가 상이*하여, 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 (1) 회계정책의 변경: 과거의 회계처리부터 수정(→ 소급적용), (2) 회계추정의 변경: 미래의 회계처리만 수정(→ 전진적용)

-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불분명*하여, 회계처리시 실무적 혼란이 있어 왔음

* 現회계기준: 회계추정의 정의는 없으며,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원칙, 근거, 관습, 관행 등으로 정의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회계추정(치)'에 대한 정의 제시 (제1008호 문단 5)

○ (현행) '회계추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음

○ (개정) '회계추정치'를 불확실성에 노출된 항목에 대한 추정의 결과물인 화폐금액으로 새롭게 정의*

* 회계추정치: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②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대한 의미의 명확화 (제1008호 문단 34, 34A, 38)

○ (현행)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

* 회계추정의 변경: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을 바꾸는 것

- 특히, '측정기법'과 '투입변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이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개정) 불확실성에 노출된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추정)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할 때 사용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는 회계추정치에 포함됨을 명시

- 기업이 새로운 상황의 전개, 새로운 정보의 획득으로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를 변경한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함

■ [참고]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례

① (새로운 상황의 전개) A사는 공장의 장부금액을 감가상각할 때, 공장의 잔여 사용가능연수를 10년에서, 현재의 사용 추세를 반영하여 20년으로 변경 → 회계추정치의 변경 ○

② (새로운 정보의 획득) B은행은 C사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측정할 때, 최신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도록, 전기에 사용한 투입변수(대출건별 그룹핑 수정, B사가 속한 산업의 업황 업데이트 등)를 당기에 변경 → 회계추정치의 변경 ○

※ 이번 개정으로 제1008호 기준서 명칭이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로 바뀜

다.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

□ 시행일 이후 발생한 회계추정치 변경에 전진적으로 적용

라.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 현행 회계기준 하에서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기업들의 실무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개정경과

- ☐ 2021. 5. 21. 개정 공개초안 의결(회계기준위원회)
- ☐ 2021. 5. 31. ~ 2021. 7. 30.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금융감독원 등)
- ☐ 2021. 9. 10.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나.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보고(2021.12.1.)

다. 제22차 안전검토 소위원회 보고(2021.12.3.)

라. 관련법규(붙임1)

<별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1. 9. 10.

저작권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1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 및 국제재무보고기준의 본문, 또는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0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and is publish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4th Fl.,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실무적용지침 개정 ..	14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1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문단 5, 32, 34, 38, 48과 문단 32 위의 제목을 개정하였다. 문단 32A~32B, 34A, 54I와 문단 34와 문단 36 위의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39 위의 제목은 문단 34 위에 추가된 제목의 소제목으로 포함되도록 수정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 ‘accounting estimates’를 ‘회계추정치’로 번역함에 따라 문단 1, 5, 35, 36, 37, 39, 54F를 추가로 개정하였다.

목적

-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정책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와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적용범위

- 3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와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추정치: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회계추정의 변경~~: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전진적용: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

- (1) 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 (2) 회계추정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

회계추정치의 변경

- 32 회계정책은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회계정책은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 하는 화폐금액으로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밖에 없다. 회계추정치의 개발은 최근의 이용할 수 있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가장 최근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나 가정을 수반된다. 회계추정치가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 태손
 - (2) 재고자산 항목의 순실현가능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적용)재고자산 전부화
 - (3)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적용)
 - (4) 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적용)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바행태
 - (5) 품질보증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용)

- 32A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측정기법에는 추정기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과 평가기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 포함된다.
- 32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에 정의하는 회계추정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추정(치)은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나타낸다.

회계추정치 변경

- 34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에 회계추정치와 수장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의 수장변경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 34A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 35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와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 (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 (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 37 회계추정치와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치를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회계추정치 변경 적용

...

- 38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 변경점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커타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태손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변경이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카태예상소비 형태의 변경은 당기와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동안에 걸쳐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공시

...

- 39 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류

- 48 오류의 수정은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적 추정치는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에 변경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이다. 예를 들어, 우발상황의 결과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의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54F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6과 문단 11(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과 문단 11(2)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문단 23~28을 참조하여 문단 6과 문단 11(2)에 대한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이 기준서의 문단 23~28의 적용에 있어 문단 27의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함’으로, ‘실무적으로 가능함’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함’으로 참조를 해석한다.
- 54I 202X년 X월에 공표한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따라 문단 5, 32, 34, 38, 48을 개정하였고, 문단 32A, 32B, 34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개정(2021. 9. 1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주,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실무적용지침 개정

사례 3은 삭제하고 사례 4~5를 추가하였다. 사례 3에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사례 4~5는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사례 3: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

- 3.1. ~~20X2년 중 델타기업은 요소별 접근법을 더욱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형자산에 관한 감가상각정책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였다.~~
- 3.2 ~~20X2년 전에 델타기업의 자산에 관한 기록은 요소별 접근법을 완전하게 적용하기에는 충분히 상세하지 않았다. 20X1년 말에 경영진은 기술적 조사를 위탁하였으며, 이 조사는 20X2년 기초에 보유하고 있는 요소에 관한 정보와 그 요소의 공정가치, 내용연수, 추정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대상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종전에 개별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던 요소의 원가를 추정할 만한 신뢰성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조사 전의 기존 기록도 이 정보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 3.3 ~~델타기업의 경영진은 회계정책변경의 두 가지 측면 각각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들은 더욱 완전한 요소별 접근법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회계처리 또는 20X2년 기초보다 이른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변경하는 회계처리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델타기업의 새로운 회계정책을 20X2년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론지었다.~~

3.4 추가 정보

델타기업의 법인세율은 30%이다.

(단위: 원)

20X1년말 유형자산:

원가	25,000
감가상각	(14,000)
순장부가차	<u>11,000</u>

20X2년 예상 감가상각비 (구기준) 1,500

기술적 조사의 일부 결과:

평가가차	17,000
추정잔존가차	3,000
평균잔존내용연수	7

20X2년 현존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기준) 2,000

주석에서 발췌

- 1 20X2년 기초부터 델타기업은 요소별 접근법을 더욱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형자산에 관한 감가상각정책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채평가모형을 채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이 변경으로 유형자산을 요소별로 더욱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형자산이 최근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적용효과를 소급적으로 또는 가장 이른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X2년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계정책의 채택은 과거기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기에는 기초 유형자산 장부금액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6,000원과 1,800원만큼 증가하며, 재평가잉여금 4,200원이 발생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500원만큼 증가하며, 법인세비용이 150원만큼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례 4: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사실관계

- 4.1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기술된 이익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 4.2 그러나 이전 보고기간 후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기술된 시장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기법으로 평가기법을 변경하였다. 기업 A는 변경 후 측정 결과가 현재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더 잘 나타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이러한 변경은 허용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기업 A는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4.3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
- (1)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판매 거래나 구매 거래에서 받거나 지급하게 될 가격을 반영하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
 - (2)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정책(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데 사용한 측정기법(가치평가기법)의 산출물이다.
 - (3)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추정치를 개발할 때, 기업 A는 판단과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측정기법을 선택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한다.

(나) 측정기법을 적용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투입변수(예: 비교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정보)를 개발한다.

4.4 이 사실관계에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측정기법의 변경이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사례 5: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부채의 공정가치

사실관계

5.1 20X0년 1월 1일, 기업 A는 앞으로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각 종업원에게 주가차액보상권(SARs) 100개를 부여하였다. 주가차액보상권은 20X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3년의 가득기간 동안 기업의 주가 상승에 따라 미래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에게 부여한다.

5.2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주가차액보상권 부여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고 이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 정의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업 A는 20X0년 1월 1일과 보고기간 말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옵션가격결정모형인 블랙-숄즈-머튼 모형(the Black - Scholes - Merton formula)을 적용한다.

5.3 기업 A는 20X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전 보고기간 말 후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대주가변동성(즉 옵션가격결정모형의 투입변수)의 추정을 변경한다. 기업 A는 투입변수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5.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

- (1) 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가상의 거래에서 부채가 결제될 금액이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
- (2)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정책(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법(옵션가격결정모형)의 산출물이다.
- (3) 기업 A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측정기법을 선택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선택한다.
 - (나) 측정기법을 적용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투입변수(예: 기대주가변동성, 주식에 대한 기대배당)를 개발한다.

5.5 이 사실관계에서 기대주가변동성의 변경은 20X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투입변수의 변경이다.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1은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하였고, 추가된 새로운 문구를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42~BC59 및 관련된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문단 BC42~BC59 및 관련된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 ‘accounting estimates’를 ‘회계추정치’로 번역함에 따라 문단 BC32, BC33 및 관련된 제목을 추가로 개정하였다.(붙임1. 검토보고서 참조)

도입

BC1 IASB가 2003년에 IAS 8 ‘기간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에 대한 2003년 개정을 개정하기 과 그 후 개정을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3 이 기준서에는 개정 전 IAS 8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IASB의 의도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개정 전 기준서의 모든 규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8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의 인식

BC32 공개초안은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다음과 같은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개정 전 IAS 8의 규정을 예외 없이 유지한다고 제안하였다.

(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 (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BC33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회계추정치와 모든 변경 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회계추정치와 변경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업의 자본이 결과적으로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회계추정치와 변경효과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상황의 경우 문단 BC32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회계추정치의 정의 (2021년 개정)

배경

- BC42 IFRS 해석위원회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면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IASB에 알렸다. IASB는 IAS 8의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종전의 정의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 BC43 2021년 2월에 IASB는 IAS 8을 개정한 ‘회계추정치의 정의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를 발표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문단 5에 회계추정치의 정의를 도입하였고, 기업이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IAS 8의 다른 개정을 포함하였다.

회계추정치의 정의

- BC44 2021년 개정 전에, IAS 8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포함하였다. 한 항목의 정의(회계정책)와 다른 항목에 대한 변경의 정의(회계추정의 변경)를 결합했기 때문에 회계정책과 회계

추정의 차이가 모호했다. 그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IASB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하였다. IASB가 회계추정치의 정의 및 관련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고려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치의 관계**: 이 개정에서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치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IASB는 이렇게 명확히 하면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 (2) **판단과 가정**: 의견조회를 위해 ‘2021년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을 때, IASB는 회계추정치를 어떤 항목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을 때 회계정책을 적용하면서 사용하는 판단과 가정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회계추정치는 기업의 판단이나 가정이 필요한 측정기법의 산출물이며 판단이나 가정은 회계추정치가 아니라고 명시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에 동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 시 측정기법에 관련되지 않는 판단과 가정을 할 때 그러한 판단과 가정이 회계추정치인지에 대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
- (3) **측정불확실성**: IASB는 ‘측정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도입하였다. IASB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 회계추정치의 정의가 더 명확해 지고 ‘개념체계1’(2018)와 일관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4) **화폐금액**: 측정불확실성의 정의와 일관되도록 회계추정치의 정의에서 화폐금액이라는 용어를 언급한다²⁾. IASB는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비화폐성 수치(예: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재무제표의 화폐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투입변수로 비화폐성 수치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화폐금액)를 추정할 때 투입변수로 자산의 내용연수(비화폐성

1) 측정불확실성은 ‘개념체계’(2018) 부록에서 ‘재무보고서의 화폐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정의된다.
 2) ‘화폐금액’이라는 용어는 IAS 21 ‘환율변동효과’에서 정의한 ‘화폐성항목’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수치)를 사용한다.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투입변수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이기 때문에(문단 BC46 참조), IASB는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비화폐성 수치는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 (5) **범위:** IASB는 회계추정치의 정의가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이 아닌 다른 사항(예: 재무제표의 항목을 인식할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한 추정)에 회계정책을 적용하면서 사용된 추정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종전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조정'을 의미하였으므로, 재무제표에 인식된 항목의 측정치 변동만을 포함하였다. IASB는 이 개정으로 IAS 8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항목의 화폐금액만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제한하였다.

회계추정치 변경

BC45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한 종전 정의에서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IASB는 종전 정의의 이러한 측면을 유지하고 회계추정치 변경이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명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46 또한 IASB는 회계추정치가 측정기법의 산출물이라면, 사용된 투입변수나 그 산출물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법의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의 결과가 아니라 관련 회계추정치 변경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BC47 문단 BC45~BC46에 요약된 의견에 비추어, IAS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1)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2)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BC48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에서 측정기법이 회계정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평가기법은 측정기법이지만 관행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회계정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측정기법 변경의 영향을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 모두로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IASB는 문단 34A에서 측정기법 변경의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라고 규정하였다.

BC49 또한 IASB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기법에는 추정기법과 평가기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하면 추정기법 변경의 영향이나 평가기법의 변경의 영향이 회계추정치 변경인지 모호하지 않게 된다. ‘추정기법’과 ‘평가기법’이라는 용어는 개별 기준서에 나와 있다. 예를 들어,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추정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평가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BC50 IASB는 개별 기준서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가 회계추정치뿐만 아니라 그 밖의 추정(치)을 의미할 때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뜻하기도 한다. 문단 BC47(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는 투입변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추정(치)’이라는 용어가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의미할 때 그러한 용어의 의미도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회계정책’의 정의

정의의 명확화

- BC51 의견조회를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IASB는 ‘관습’과 ‘규칙’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근거’ 대신 ‘측정 기준’을 언급함으로써 회계정책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변경으로 정의의 범위가 바뀌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 (1) 회계정책의 정의에서 언급된 나머지 용어는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정책의 정의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 (2) 회계정책의 정의의 범위가 의도치 않게 좁아질 수 있다.

- BC52 IASB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뒤,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에서 회계정책의 정의에서 언급된 나머지 용어까지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회계정책의 정의를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대로 변경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개정 내용은 회계추정치 변경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IASB는 회계정책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회계정책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선택

- BC53 IASB는 의견조회를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에 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함에 있어 단위원가 결정방법(선입선출법(FIFO) 또는 가중평균법)을 선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단위원가 결정방법 선택도 회계추정치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IASB는 이미 IAS 2 문단 36(1)에 단위원가 결정방법 선택은 회계정책의 선택에 해당한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IASB는 이러한 결론을 2021년 개정에서 재검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거의 변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재검토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적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적용 사례

사례 3의 삭제

- BC54 IASB는 IAS 8의 실무적용지침 사례 3의 유형자산 회계처리에서 특정한 변경사항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IASB는 이 문제를 다루려면 효익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사례를 실질적으로 재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사례 3을 삭제하였다.

사례 4~5 추가

- BC55 개정 공개초안에는 개정 내용의 적용을 설명하는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및 후속 의견수렴과정에서 적용사례를 제공하면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IASB는 두 가지 사례(사례 4~5)를 추가하였다. 이들 사례는 간단하며 사례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적용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추정치의 정의를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국한된다.

영향 분석

- BC56 IASB는 2021년 개정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2021년 개정으로 IAS 8의 요구사항이 더 명확해졌으며, 이러한 개정이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BC5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개정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식별한 모든 적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개정은 다음 중 어떤 원인 때문에 변경이 발생하는지를 모든 상황에서 명확히 하지는 못할 수 있다.
- (1) 측정 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회계정책의 변경일 것임)
 - (2) 측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법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회계추정치 변경일 것임)

BC58 그러나 IASB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경우 문단 35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규정에서는 회계 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경과규정

BC59 IASB는 2021년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면 예상 효익과 원가의 균형이 적절히 유지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IASB는 개정 내용을 과거 기간에 발생한 변경에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의 효익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한 변경은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일 것이며 비교정보의 재작성은 종종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추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개정안 영·한 대비표

본문

IAS 8 본문 개정	제1008호 본문 개정안
<p>Amendments to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p> <p>Paragraphs 5, 32, 34, 38 and 48 and the heading above paragraph 32 are amended. Paragraphs 32A - 32B, 34A and 54I and the headings above paragraphs 34 and 36 are added. The heading above paragraph 39 is amended to be a sub-heading of the heading added above paragraph 34.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and new text is underlined.</p>	<p>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 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p> <p>*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V. 용어의 선택에 따라 ‘accounting estimates’를 ‘회계추정치’로 번역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기준서 명을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로 변경하였다. 기준서 명에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를 밑줄로 표시하였다. 이후 본문, 결론도출근거에서 언급되는 기준서명도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나, 읽기 편하도록 취소선과 밑줄은 표시하지 않았다.</p> <p>문단 5, 32, 34, 38, 48과 문단 32 위의 제목을 개정하였다. 문단 32A~32B, 34A, 54I와 문단 34와 문단 36 위의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39 위의 제목은 문단 34 위에 추가된 제목의 소제목으로 포함되도록 수정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p>
<p>Definitions</p> <p>5 The following terms are used in this Standard with the meanings specified:</p> <p>...</p>	<p>용어의 정의</p> <p>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p>

IAS 8 본문 개정	제1008호 본문 개정안
<p><u>Accounting estimates are monetary amounts in financial statements that are subject to measurement uncertainty.</u></p> <p>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is an adjustment of the carrying amount of an asset or a liability, or the amount of the periodic consumption of an asset, that results from the assessment of the present status of, and expected future benefits and obligations associated with, assets and liabilit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result from new information or new developments and, accordingly, are not corrections of errors.</p>	<p><u>회계추정치: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u></p> <p>회계추정의 변경: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u>Accounting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u></p> <hr/> <p>32 <u>An accounting policy may require items in financial statements to be measured in a way that involves measurement uncertainty –</u></p>	<p><u>회계추정치의 변경</u></p> <hr/> <p>32 <u>회계정책은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회계정책은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 하는 화폐</u></p>

IAS 8 본문 개정	제1008호 본문 개정안
<p>that is, the accounting policy may require such items to be measured at monetary amounts that cannot be observed directly and must instead be estimated. In such a case, an entity develops an accounting estimate to achieve the objective set out by the accounting policy. As a result of the uncertainties inherent in business activities, many items in financial statements cannot be measured with precision but can only be estimated. Developing accounting estimates involves the use of judgements or assumptions. Estimation involves judgements based on the latest available, reliable information. Examples of accounting estimates include For example, estimates may be required of:</p> <p>(a) a loss allowance for expected credit losses, applying IFRS</p>	<p>금액으로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 사업 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밖에 없다. 회계추정치의 개발은 최근의 이용할 수 있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가장 최근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나 가정을 수반된다. 회계추정치가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p> <p>(1)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에 대손</p>

IAS 8 본문 개정	제1008호 본문 개정안
<p><u>9 Financial Instruments</u></p> <p>bad debts;</p> <p>(b) <u>the net realisable value of an item of inventory, applying IAS 2 Inventories i-n-v-e-n-t-o-r-y obsolescence;</u></p> <p>(c) <u>the fair value of an asset or liability, applying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financial assets or financial liabilities;</u></p> <p>(d) <u>the depreciation expense for an item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pplying IAS 16the useful lives of, or expected pattern of consumption of the future economic benefits embodied in, depreciable assets;</u> and</p> <p>(e) <u>a provision for warranty obligations, applying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u></p>	<p>(2) <u>재고자산 항목의 순실현 가능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적용)재고자산 전부화</u></p> <p>(3) <u>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적용)</u></p> <p>(4) <u>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적용)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 채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u></p> <p>(5) <u>품질보증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용)</u></p>

IAS 8 본문 개정	제1008호 본문 개정안
<p>32A <u>An entity uses measurement techniques and inputs to develop an accounting estimate. Measurement techniques include estimation techniques (for example, techniques used to measure a loss allowance for expected credit losses applying IFRS 9) and valuation techniques (for example, techniques used to measure the fair value of an asset or liability applying IFRS 13).</u></p>	<p>32A <u>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측정기법에는 추정기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과 평가기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 포함된다.</u></p>
<p>32B <u>The term ‘estimate’ in IFRSs sometimes refers to an estimate that is not an accounting estimate as defined in this Standard. For example, it sometimes refers to an input used in developing accounting estimates.</u></p>	<p>32B <u>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회계추정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추정(치)은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나타낸다.</u></p>
<p><u>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u></p> <p>34 <u>An entity may need to change an accounting estimate may need revision if changes occur in the circumstances on which the accounting estimate was based or as a result of new information, new developments or more</u></p>	<p><u>회계추정치 변경</u></p> <p>34 <u>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에 회계추정치와 수정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와 수정변경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u></p>

IAS 8 본문 개정	제1008호 본문 개정안
<p>experience. By its nature, <u>a change in an accounting the revision of an estimate</u> does not relate to prior periods and is not the correction of an error.</p>	<p>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p>
<p>34A <u>The effects on an accounting estimate of a change in an input or a change in a measurement technique are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unless they result from the correction of prior period errors.</u></p> <p>...</p>	<p>34A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p> <p>...</p>
<p><u>Applying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u></p> <p>...</p> <p>38 Prospective recognition of the effect of a change in an accounting estimate means that the change is applied to transactions, other events and conditions from the date of <u>that the change in estimate</u>. A change in an accounting estimate may affect only the current period's profit or loss, or the profit or loss of both the current</p>	<p><u>회계추정치 변경 적용</u></p> <p>...</p> <p>38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 <u>변경</u>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카타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u>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u>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당기손</p>

IAS 8 본문 개정	제1008호 본문 개정안
<p>period and future periods. For example, a change in <u>a loss allowance for expected credit losses</u> the estimate of the amount of bad debts affects only the current period's profit or loss and therefore is recognised in the current period. However, a change in the estimated useful life of, or the expected pattern of consumption of the future economic benefits embodied in, a depreciable asset affects depreciation expense for the current period and for each future period during the asset's remaining useful life. In both cases, the effect of the change relating to the current period is recognised as income or expense in the current period. The effect, if any, on future periods is recognised as income or expense in those future periods.</p> <p>Disclosure <u>Disclosure</u> ... </p>	<p>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변경이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효익의 <u>카태예상소비</u> 형태의 변경은 당기와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동안에 걸쳐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p> <p>공사 <u>공시</u> ... </p>

IAS 8 본문 개정	제1008호 본문 개정안
<p>Errors</p> <hr/> <p>...</p> <p>48 Corrections of errors are distinguished from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ccounting estimates by their nature are approximations that may need <u>changing</u> revision as additional information becomes known. For example, the gain or loss recognised on the outcome of a contingency is not the correction of an error.</p>	<p>오류</p> <hr/> <p>...</p> <p>48 오류의—수정은 회계추정치와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적—추정치는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에 <u>변경수정</u>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이다. 예를 들어, 우발상황의 결과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p>
<p>Effective date and transition</p> <hr/> <p>...</p> <p>54I <u>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u>, issued in February 2021, amended paragraphs 5, 32, 34, 38 and 48 and added paragraphs 32A, 32B and 34A. An entity shall apply the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23.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An</p>	<p>시행일과 경과규정</p> <hr/> <p>...</p> <p>54I <u>202X년 X월에 공표한 ‘회계 추정치의 정의’에 따라 문단 5, 32, 34, 38, 48을 개정하였고, 문단 32A, 32B, 34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u></p>

IAS 8 본문 개정	제1008호 본문 개정안
<p><u>entity shall apply the amendments to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that occur on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first annual reporting period in which it applies the amendments.</u></p>	<p><u>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한다.</u></p>

실무적용지침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i>Amendments to the Guidance on implementing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i></p> <p><i>This guidance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AS 8.</i></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Example 3 is deleted and Examples 4 - 5 are added. In Example 3,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and new text is underlined. In Examples 4 - 5, for ease of reading, new text has not been underlined.</p> </div> <p>Example 3 – Prospective application of a change in accounting policy when retrospective application is not practicable</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Deleted]</p> <p>3.1 During 20X2, Delta Co changed its accounting policy for depreciating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so as to apply much more fully a components</p>	<p>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 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실무적용지침</p> <p>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사례 3은 삭제하고 사례 4~5를 추가하였다. 사례 3에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사례 4~5는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div> <p>사례 3: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p> <hr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삭제]</p> <p>3.1 20X2년 중 델타기업은 요소별 접근법을 더욱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형자산에 관한 감가상각정책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였다.</p>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3.2 In years before 20X2, Delta's asset records were not sufficiently detailed to apply a components approach fully. At the end of 20X1, management commissioned an engineering survey, which provided information on the components held and their fair values, useful lives, estimated residual values and depreciable amounts at the beginning of 20X2. However, the survey did not provide a sufficient basis for reliably estimating the cost of those components that had not previously been accounted for separately, and the existing records before the survey did not permit this information to be reconstructed.</p>	<p>3.2 20X2년 전에 델타기업의 자산에 관한 기록은 요소별 접근법을 완전하게 적용하기에는 충분히 상세하지 않았다. 20X1년 말에 경영진은 기술적 조사를 위탁하였으며, 이 조사는 20X2년 기초에 보유하고 있는 요소에 관한 정보와 그 요소의 공정가치, 내용연수, 추정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대 상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종전에 개별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던 요소의 원가를 추정할 만한 신뢰성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조사 전의 기존 기록도 이 정보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p>
<p>3.3 Delta's management considered how to account for each of the two aspects of the accounting change. They determined that it was not practicable to</p>	<p>3.3 델타기업의 경영진은 회계정책 변경의 두 가지 측면 각각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들은 더욱 완전한 요소별 접근법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회계처리 또는 20X2</p>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account for the change to a fuller components approach retrospectively, or to account for that change prospectively from any earlier date than the start of 20X2. Also, the change from a cost model to a revaluation model is required to be accounted for prospectively. Therefore, management concluded that it should apply Delta's new policy prospectively from the start of 20X2.</p>	<p>년 기초보다 이른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변경하는 회계처리하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델타기업의 새로운 회계정책을 20X2년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론지었다.</p>																																				
3.4 Additional information:	3.4 추가 정보																																				
<p>Delta's tax rate is 30 per cent.</p>	<p>델타기업의 법인세율은 30%이다.</p>																																				
<table><tr><td></td><td>CU</td><td></td></tr><tr><td>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t the end of 20X1:</td><td></td><td>(단위: 원)</td></tr><tr><td>Cost</td><td>25,000</td><td></td></tr><tr><td>Depreciation</td><td><u>(14,000)</u></td><td></td></tr><tr><td>Net book value</td><td><u>11,000</u></td><td></td></tr><tr><td>Prospective depreciation expense for 20X2 (old basis)</td><td>1,500</td><td></td></tr></table>		CU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t the end of 20X1:		(단위: 원)	Cost	25,000		Depreciation	<u>(14,000)</u>		Net book value	<u>11,000</u>		Prospective depreciation expense for 20X2 (old basis)	1,500		<table><tr><td>20X1년말 유형자산:</td><td></td></tr><tr><td>원가</td><td>25,000</td></tr><tr><td>감가상각</td><td><u>(14,000)</u></td></tr><tr><td>순장부가차</td><td><u>11,000</u></td></tr><tr><td>20X2년 예상 감가상각비 (구기준)</td><td>1,500</td></tr><tr><td>기술적 조사의 일부 결과:</td><td></td></tr><tr><td>평가가차</td><td>17,000</td></tr><tr><td>추정잔존가차</td><td>3,000</td></tr><tr><td>평균잔존내용연수</td><td>7</td></tr></table>	20X1년말 유형자산:		원가	25,000	감가상각	<u>(14,000)</u>	순장부가차	<u>11,000</u>	20X2년 예상 감가상각비 (구기준)	1,500	기술적 조사의 일부 결과:		평가가차	17,000	추정잔존가차	3,000	평균잔존내용연수	7
	CU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t the end of 20X1:		(단위: 원)																																			
Cost	25,000																																				
Depreciation	<u>(14,000)</u>																																				
Net book value	<u>11,000</u>																																				
Prospective depreciation expense for 20X2 (old basis)	1,500																																				
20X1년말 유형자산:																																					
원가	25,000																																				
감가상각	<u>(14,000)</u>																																				
순장부가차	<u>11,000</u>																																				
20X2년 예상 감가상각비 (구기준)	1,500																																				
기술적 조사의 일부 결과:																																					
평가가차	17,000																																				
추정잔존가차	3,000																																				
평균잔존내용연수	7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Some results of the engineering survey:</p> <p>Valuation 17,000</p> <p>Estimated residual value 3,000</p> <p>Average remaining asset life (years) 7</p> <p>Depreciation expense on existing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for 20X2 (new basis) 2,000</p> <p>Extract from the notes</p>	<p>20X2년 현존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기준) 2,000</p> <p>주석에서 발췌</p>
<p>1 From the start of 20X2, Delta changed its accounting policy for depreciating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so as to apply much more fully a components approach, whilst at the same time adopting the revaluation model. Management takes the view that this policy provides reliable and more relevant information because it deals more accurately with the components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nd is based on up to date values.</p>	<p>1 20X2년 기초부터 델타기업은 요소별 접근법을 더욱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형자산에 관한 감가상각 정책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이 변경으로 유형자산을 요소별로 더욱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형자산이 최근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적용효과를 소급적으로 또는 가장 이른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X2년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p>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The policy has been applied prospectively from the start of 20X2 because it was not practicable to estimate the effects of applying the policy either retrospectively, or prospectively from any earlier date. Accordingly, the adoption of the new policy has no effect on prior years. The effect on the current year is to increase the carrying amount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at the start of the year by CU6,000; increase the opening deferred tax provision by CU1,800; create a revaluation surplus at the start of the year of CU4,200; increase depreciation expense by CU500; and reduce tax expense by CU150.</p>	<p>따라서 새로운 회계정책의 채택은 과거기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기에는 기초 유형자산 장부금액과 이연 법인세부채는 각각 6,000원과 1,800원만큼 증가하며, 재평가잉여금 4,200원이 발생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500원만큼 증가하며, 법인세비용이 150원만큼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p>
<p>Example 4 – Applying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 – Fair value of an investment property</p> <hr/>	<p>사례 4: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p> <hr/>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Fact pattern	사실관계
<p>4.1 Entity A owns an investment property that it accounts for by applying the fair value model in IAS 40 <i>Investment Property</i>. Since it acquired the investment property, Entity A has been measuring the investment property's fair value using a valuation technique consistent with the income approach described in IFRS 13 <i>Fair Value Measurement</i>.</p>	<p>4.1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기술된 이익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다.</p>
<p>4.2 However, because of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since the previous reporting period, Entity A changes the valuation technique it uses to a valuation technique consistent with the market approach described in IFRS 13. Entity A has concluded that the resulting measurement is more representative of the investment property's fair value in the circumstances existing at the end of the current reporting period</p>	<p>4.2 그러나 이전 보고기간 후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기술된 시장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기법으로 평가기법을 변경하였다. 기업 A는 변경 후 측정 결과가 현재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더 잘 나타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이러한 변경은 허용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기업 A는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p>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and, therefore, that IFRS 13 permits such a change. Entity A has also concluded that the change in the valuation technique is not a correction of a prior period error.</p>	
<p>Applying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p> <p>4.3 The fair value of the investment property is an accounting estimate because:</p> <p>(a) the fair value of the investment property is a monetary amoun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is subject to measurement uncertainty. Fair value reflects the price that would be received or paid in a hypothetical sale or purchase transaction between market participants – accordingly, it cannot be observed directly</p>	<p>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p> <p>4.3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p> <p>(1)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공정가치는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판매 거래나 구매 거래에서 받거나 지급하게 될 가격을 반영하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p>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and must instead be estimated.</p> <p>(b) the fair value of the investment property is an output of a measurement technique (a valuation technique) used in applying the accounting policy (fair value model).</p> <p>(c) in developing its estimate of the fair value of the investment property, Entity A uses judgements and assumptions, for example, in:</p> <p>(i) selecting the measurement technique – selecting the valuation technique that i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nd</p> <p>(ii) applying the measurement technique – developing the inputs that market</p>	<p>(2)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정책(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법(가치평가기법)의 산출물이다.</p> <p>(3)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추정치를 개발할 때, 기업 A는 판단과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p> <p>(가) 측정기법을 선택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한다.</p> <p>(나) 측정기법을 적용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투입변수</p>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participants would use in applying the valuation technique, such as information generated by market transactions involving comparable assets.</p>	<p>(예: 비교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정보)를 개발한다.</p>
<p>4.4 In this fact pattern, the change in the valuation technique is a change in the measurement technique applied to estimate the fair value of the investment property. The effect of this change is a change in an accounting estimate because the accounting policy – to measure the investment property at fair value – has not changed.</p>	<p>4.4 이 사실관계에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측정기법의 변경이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p>
<p>Example 5 – Applying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 – Fair value of a cash-settled share-based payment liability</p> <hr/> <p>Fact pattern</p>	<p>사례 5: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p> <p>–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부채의 공정가치</p> <hr/> <p>사실관계</p>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5.1 On 1 January 20X0, Entity A grants 100 share appreciation rights (SARs) to each of its employees, provided the employee remains in the entity's employment for the next three years. The SARs entitle the employees to a future cash payment based on the increase in the entity's share price over the three-year vesting period starting on 1 January 20X0.</p>	<p>5.1 20X0년 1월 1일, 기업 A는 앞으로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각 종업원에게 주가차액보상권(SARs) 100개를 부여하였다. 주가차액보상권은 20X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3년의 가득기간 동안 기업의 주가 상승에 따라 미래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에게 부여한다.</p>
<p>5.2 Applying IFRS 2 <i>Share-based Payment</i>, Entity A accounts for the grant of the SARs as cash-settled share-based payment transactions – in doing so it recognises a liability for the SARs and measures that liability at its fair value (as defined by IFRS 2). Entity A applies the Black - Scholes - Merton formula (an option pricing model) to measure the fair value of the liability for the SARs at 1 January 20X0 and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p>	<p>5.2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주가차액보상권 부여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고 이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 정의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업 A는 20X0년 1월 1일과 보고기간 말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옵션가격결정모형인 블랙-숄즈-머튼 모형(the Black - Scholes - Merton formula)을 적용한다.</p>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5.3 At 31 December 20X1, because of changes in market conditions since the end of the previous reporting period, Entity A changes its estimate of the expected volatility of the share price—an input to the option pricing model—in estimating the fair value of the liability for the SARs at that date. Entity A has concluded that the change in that input is not a correction of a prior period error.</p>	<p>5.3 기업 A는 20X1년 12월 31일에 추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전 보고기간 말 후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대주가변동성(즉 옵션가격결정 모형의 투입변수)의 추정을 변경한다. 기업 A는 투입변수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p>
<p>Applying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p> <p>5.4 The fair value of the liability is an accounting estimate because:</p> <p>(a) the fair value of the liability is a monetary amoun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is subject to measurement uncertainty. That fair value is the amount for which the liability</p>	<p>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p> <p>5.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p> <p>(1) 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가상의 거래에서 부채가 결제될 금액이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p>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could be settled in a hypothetical transaction – accordingly, it cannot be observed directly and must instead be estimated.</p> <p>(b) the fair value of the liability is an output of a measurement technique (option pricing model) used in applying the accounting policy (measuring a liability for a cash-settled share-based payment at fair value).</p> <p>(c) to estimate the fair value of the liability, Entity A uses judgements and assumptions, for example, in:</p> <p>(i) selecting the measurement technique – selecting the option pricing model; and</p> <p>(ii) applying the measurement</p>	<p>(2)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 정책(현금결제형 주식기 준보상거래의 부채를 공 정가치로 측정)을 적용하 는 데 사용한 측정기법 (옵션가격결정모형)의 산 출물이다.</p> <p>(3) 기업 A는 부채의 공정가 치를 추정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p> <p>(가) 측정기법을 선택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 여 옵션가격결정모형 을 선택한다.</p> <p>(나) 측정기법을 적용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p>

IAS 8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8호 실무적용지침 개정안
<p>technique – developing the inputs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use in applying that option pricing model, such as the expected volatility of the share price and dividends expected on the shares.</p>	<p>여 시장참여자가 옵션 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투입변수(예: 기대주가변동성, 주식에 대한 기대배당)를 개발한다.</p>
<p>5.5 In this fact pattern, the change in the expected volatility of the share price is a change in an input used to measure the fair value of the liability for the SARs at 31 December 20X1. The effect of this change is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because the accounting policy – to measure the liability at fair value – has not changed.</p>	<p>5.5 이 사실관계에서 기대주가변동성의 변경은 20X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투입변수의 변경이다.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p>

결론도출근거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Amendments to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p> <p><i>This Basis for Conclusions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AS 8.</i></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Paragraph BC1 is amended with new text underlined. Paragraphs BC42 - BC59 and related headings are added. For ease of reading, paragraphs BC42 - BC59 and the related headings have not been underlined.</p> </div>	<p>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의 결론도출근거</p> <p>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문단 BC1은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하였고, 추가된 새로운 문구를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42~BC59 및 관련된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문단 BC42~BC59 및 관련된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p> </div>
Introduction	도입
<p>BC1 This Basis for Conclusions summarises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 considerations in reaching its conclusions on revising IAS 8 <i>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i> in 2003 and on subsequent <u>amendments</u>. Individual Board members gave greater weight to some</p>	<p>BC1 IASB가 2003년에 IAS 8 ‘기간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에 대한 2003년 개정을 <u>개정하기</u>과 그 후 개정을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p>

<p>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p> <p>factors than to others.</p> <p>...</p>	<p>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p> <p>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p> <p>...</p>
<p>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 (2021 amendments)</p>	<p>회계추정치의 정의(2021년 개정)</p>
<p>Background</p> <p>BC42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nformed the Board of difficulties entities faced in distinguishing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from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The Board understood that such difficulties arose because the previous definition of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in IAS 8 was not sufficiently clear.</p>	<p>배경</p> <p>BC42 IFRS 해석위원회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면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IASB에 알렸다. IASB는 IAS 8의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종전의 정의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았다.</p>
<p>BC43 In February 2021, the Board issued <i>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i>, which amended IAS 8. The amendments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 in paragraph 5 and included other amendments to IAS 8 to help entities distinguish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from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p>	<p>BC43 2021년 2월에 IASB는 IAS 8을 개정한 ‘회계추정치의 정의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를 발표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문단 5에 회계추정치의 정의를 도입하였고, 기업이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IAS 8의 다른 개정을 포함하였다.</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	회계추정치의 정의
<p>BC44 Before the 2021 amendments, IAS 8 included definitions of ‘accounting policies’ and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The combination of a definition of one item (accounting policies) with a definition of changes in another item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obscured the distinction between accounting policies and accounting estimates. To make that distinction clearer, the Board replaced the definition of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with a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 The main matters the Board considered in developing the definition and related requirements included:</p> <p>(a) <i>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policies and accounting estimates</i> – the amendments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policies and accounting estimates by</p>	<p>BC44 2021년 개정 전에, IAS 8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포함하였다. 한 항목의 정의(회계정책)와 다른 항목에 대한 변경의 정의(회계추정의 변경)를 결합했기 때문에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차이가 모호했다. 그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IASB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하였다. IASB가 회계추정치의 정의 및 관련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고려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i>회계정책과 회계추정치의 관계</i>: 이 개정에서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치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specifying that an entity develops an accounting estimate to achieve the objective set out by an accounting policy. The Board's view was that this clarification would help entities distinguish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from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p> <p>(b) <i>judgements and assumptions</i>—when it exposed a draft of the 2021 amendments for comment, the Board proposed defining accounting estimates as judgements and assumptions used in applying accounting policies when an item cannot be measured with precision. However, the Board agreed with feedback suggesting it would be more helpful to specify that accounting estimates are the output of measurement techniques that require an entity to use</p>	<p>IASB는 이렇게 명확히 하면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p> <p>(2) <i>판단과 가정</i>: 의견조회를 위해 '2021년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을 때, IASB는 회계추정치를 어떤 항목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을 때 회계정책을 적용하면서 사용하는 판단과 가정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회계추정치는 기업의 판단이나 가정이 필요한 측정기법의 산출물이며 판단이나 가정은 회계추정치가 아니라고 명시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에 동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 시 측정기법에 관련되지 않는 판단과 가정을 할 때 그러한 판단과 가정</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judgements or assumptions and that the judgements or assumptions are not accounting estimates themselves. This approach also avoids confusion about whether other judgements and assumptions an entity makes in preparing its financial statements are accounting estimates.</p> <p>(c) <i>measurement uncertainty</i>—the Board introduced the term ‘measurement uncertainty’ in the definition. The Board concluded that using this term would make the definition clearer and be consistent with the 2018 <i>Conceptual Framework</i>¹.</p> <p>1 Measurement uncertainty is defined in the Appendix to the 2018 <i>Conceptual Framework</i> as the ‘uncertainty that arises when monetary amounts in financial reports cannot be observed directly and must instead be estimated’.</p>	<p>이 회계추정치인지에 대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p> <p>(3) 측정불확실성: IASB는 ‘측정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도입하였다. IASB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 회계추정치의 정의가 더 명확해 지고 ‘개념체계’¹(2018)와 일관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p> <p>1 측정불확실성은 ‘개념체계’(2018) 부록에서 ‘재무보고서의 화폐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정의된다.</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d) <i>monetary amounts</i> – the definition refers to monetary amounts for consistency with the definition of measurement uncertainty². The Board considered whether the definition should also refer to non-monetary amounts (for example, the useful life of depreciable assets). However, the Board observed that entities use non-monetary amounts as inputs to estimate monetary amoun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 for example, an entity uses the useful life of an asset (a non-monetary amount) as an input in estimating the depreciation expense for that asset (a monetary amount). Because the effects of changes in inputs used to develop an accounting estimate are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see</p>	<p>(4) 화폐금액: 측정불확실성의 정의와 일관되도록 회계추정치의 정의에서 화폐금액이라는 용어를 언급한다². IASB는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비화폐성 수치(예: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재무제표의 화폐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투입변수로 비화폐성 수치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화폐금액)를 추정할 때 투입변수로 자산의 내용연수(비화폐성 수치)를 사용한다.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투입변수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이기 때문에(문단 BC46 참조), IASB는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비화폐성 수치는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paragraph BC46), the Board concluded that it was unnecessary to also include non-monetary amounts in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p> <p>2 The term ‘monetary amount’ does not have the same meaning as the term ‘monetary item’ as defined in IAS 21 <i>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i>.</p> <p>(e) <i>scope</i>—the Board considered whether the definition should also capture estimates used in applying accounting policies for matters other than measuring items in financial statements (for example, estimates used in determining whether to recognise an item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previous definition of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referred to ‘adjustments to the carrying amount’ of an asset or liability and, therefore, captured</p>	<p>2 ‘화폐금액’이라는 용어는 IAS 21 ‘환율변동효과’에서 정의한 ‘화폐성항목’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p> <p>(5) 범위: IASB는 회계추정치 의 정의가 재무제표 항목 의 측정이 아닌 다른 사항 (예: 재무제표의 항목을 인식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에 회계정책 을 적용하면서 사용된 추 정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종전 회계추 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 액 조정’을 의미하였으므 로, 재무제표에 인식된 항 목의 측정치 변동만을 포 함하였다. IASB는 이 개정 으로 IAS 8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only changes in the measurement of items recognised in financial statements.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amendments should not change the scope of IAS 8 and, accordingly, limited the definition to capture only monetary amounts that are subject to measurement uncertainty.</p>	<p>는 항목의 화폐금액만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제한하였다.</p>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회계추정치 변경
<p>BC45 The previous definition of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specified that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result from new information or new developments and, accordingly, are not corrections of errors. The Board concluded that it would be helpful to retain this aspect of the previous definition and specify that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may result from new information or new developments and is not the correction of an error.</p>	<p>BC45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한 종전 정의에서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IASB는 종전 정의의 이러한 측면을 유지하고 회계추정치 변경이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명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BC46 The Board also concluded that, if accounting estimates are outputs of measurement techniques, it follows that changes in the inputs used, or in the measurement techniques applied to determine those outputs, result in a change in the related accounting estimate and are not the result of a change in accounting policy.</p>	<p>BC46 또한 IASB는 회계추정치가 측정기법의 산출물이라면, 사용된 투입변수나 그 산출물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법의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의 결과가 아니라 관련 회계추정치 변경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p>
<p>BC47 In the light of its observations summarised in paragraphs BC45 - BC46, the Board specified that:</p> <p>(a)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may result from new information or new developments and is not the correction of an error; and</p> <p>(b) the effects of a change in an input or in a measurement technique used to develop an accounting estimate are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unless they result</p>	<p>BC47 문단 BC45~BC46에 요약된 의견에 비추어, IAS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p> <p>(1)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p> <p>(2)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from the correction of prior period errors.</p>	
<p>BC48 Feedback on the draft amendments expressed a concern that measurement techniques might meet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policies—for example, a valuation technique is a measurement technique but could also be seen as a practice and, therefore, meet the definition of an accounting policy. Accordingly, there is a risk that the effects of a change in a measurement technique could be seen as both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and a change in accounting policy. To avoid this risk, the Board specified in paragraph 34A that the effects of a change in measurement technique are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unless they result from the correction of prior period errors.</p>	<p>BC48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에서 측정기법이 회계정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평가기법은 측정기법이지만 관행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회계정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측정기법 변경의 영향을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 모두로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IASB는 문단 34A에서 측정기법 변경의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라고 규정하였다.</p>
<p>BC49 The Board also specified that measurement techniques an entity uses to develop accounting estimates include estimation techniques and valuation</p>	<p>BC49 또한 IASB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기법에는 추정기법과 평가기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하면 추정기법 변경의 영향이나 평가기법</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techniques. Specifying this avoids ambiguity about whether the effect of a change in an estimation technique or a valuation technique is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The terms ‘estimation techniques’ and ‘valuation techniques’ appear in IFRS Standards – for example, IFRS 7 <i>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i> uses the term ‘estimation techniques’ and IFRS 13 <i>Fair Value Measurement</i> uses the term ‘valuation techniques’.</p>	<p>의 변경의 영향이 회계추정치 변경인지 모호하지 않게 된다. ‘추정기법’과 ‘평가기법’이라는 용어는 개별 기준서에 나와 있다. 예를 들어,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추정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평가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p>
<p>BC50 The Board observed that the term ‘estimate’ in IFRS Standards sometimes refers not only to accounting estimates, but also to other estimates. For example, it sometimes refers to inputs used in developing accounting estimates. As discussed in paragraph BC47(b), the Board specified that the effects on an accounting estimate of a change in an input are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Therefore, the Board concluded it was unnecessary to also amend</p>	<p>BC50 IASB는 개별 기준서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가 회계추정치뿐만 아니라 그 밖의 추정(치)을 의미할 때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뜻하기도 한다. 문단 BC47(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는 투입변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추정(치)’이라는 용어가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의미할 때 그러한</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references to the term 'estimate' when that term refers to an input used in developing accounting estimates.</p>	<p>용어의 의미도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p>
<p>Definition of 'accounting policies'</p> <p>Clarifying the definition</p> <p>BC51 When it exposed the draft amendments for comment, the Board also propos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policies by removing the terms 'conventions' and 'rules', and referring to 'measurement bases' instead of 'bases'. The Board expected that those changes would not change the scope of the definition. However, feedback suggested those proposed changes:</p> <p>(a) might not improve the definition, because the remaining terms in the definition would remain undefined and could be open to diverse interpretations; and</p>	<p>'회계정책'의 정의</p> <p>정의의 명확화</p> <p>BC51 의견조회를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IASB는 '관습'과 '규칙'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근거' 대신 '측정 기준'을 언급함으로써 회계정책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변경으로 정의의 범위가 바뀌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p> <p>(1) 회계정책의 정의에서 언급된 나머지 용어는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정책의 정의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b) might unintentionally narrow the scope of the definition.	(2) 회계정책의 정의의 범위가 의도치 않게 좁아질 수 있다.
<p>BC52 After considering this feedback, the Board concluded that it would not be feasible to define the remaining terms in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policies within a narrow-scope project, and that the proposed changes to the definition could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Because the amendments clarify what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is, the Board concluded that changing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policies was un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amendments and accordingly did not change that definition.</p>	<p>BC52 IASB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뒤,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에서 회계정책의 정의에서 언급된 나머지 용어까지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회계정책의 정의를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대로 변경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개정 내용은 회계추정치 변경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IASB는 회계정책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회계정책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았다.</p>
<p>Selecting inventory cost formulas</p> <p>BC53 When it exposed the draft amendments for comment, the Board proposed clarifying that, for ordinarily interchangeable inventories, selecting a cost formula (that is, first-in, first-out (FIFO) or weighted average cost) in applying IAS 2 <i>Inventories</i> constitutes</p>	<p>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 선택</p> <p>BC53 IASB는 의견조회를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에 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함에 있어 단위원가 결정방법(선입선출법(FIFO) 또는 가중평균법)을 선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제안</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selecting an accounting policy. However, some respondents to the draft amendments said selecting a cost formula could also be viewed as making an accounting estimate. The Board observed that paragraph 36(a) of IAS 2 already states that selecting a cost formula constitutes selecting an accounting policy. The Board did not revisit this conclusion in the light of the 2021 amendments because it observed that entities rarely change the cost formula used to measure inventories and, accordingly, there would be little benefit in the Board's doing so.</p>	<p>하였다. 그러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단위원가 결정방법 선택도 회계추정치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IASB는 이미 IAS 2 문단 36(1)에 단위원가 결정방법 선택은 회계정책의 선택에 해당한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IASB는 이러한 결론을 2021년 개정에서 재검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거의 변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재검토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적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p>
<p>Illustrative Examples</p> <p>Deletion of Example 3</p> <p>BC54 The Board was informed that Example 3 from <i>Guidance on implementing IAS 8</i> could cause confusion because of the way it illustrated the accounting for particular</p>	<p>적용 사례</p> <p>사례 3의 삭제</p> <p>BC54 IASB는 IAS 8의 실무적용지침 사례 3의 유형자산 회계처리에서 특정한 변경사항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IASB는 이</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changes in the accounting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The Board concluded that addressing this matter would require a substantial rewrite of the example, for little or no benefit. Therefore, the Board deleted Example 3.</p>	<p>문제를 다루려면 효익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사례를 실질적으로 재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사례 3을 삭제하였다.</p>
<p>Addition of Examples 4 - 5</p> <p>BC55 The draft amendments included no examples illustrating the application of the amendments. Respondents to the draft amendments and feedback from subsequent outreach suggested that providing illustrative examples would help entities understand and apply the amendments. In response to this feedback, the Board added two illustrative examples (Examples 4 - 5). The examples are simple and their aim is limited to helping stakeholders understand how to apply the 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 rather than aiming to address specific application questions.</p>	<p>사례 4~5 추가</p> <p>BC55 개정 공개초안에는 개정 내용의 적용을 설명하는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및 후속 의견수렴과정에서 적용사례를 제공하면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IASB는 두 가지 사례(사례 4~5)를 추가하였다. 이들 사례는 간단하며 사례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적용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추정치의 정의를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국한된다.</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Effect analysis	영향 분석
<p>BC56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expected benefits of the 2021 amendments outweigh the costs. In particular, the 2021 amendments made the requirements in IAS 8 clearer, and feedback on the draft proposals suggested that the amendments would help entities distinguish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from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p>	<p>BC56 IASB는 2021년 개정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2021년 개정으로 IAS 8의 요구사항이 더 명확해졌으며, 이러한 개정이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p>
<p>BC57 Nonetheless, the 2021 amendments might not solve all application questions identified by stakeholders. For example, they may not clarify in all situations whether a change results from:</p> <p>(a) a change in an underlying measurement objective (which would be a change in accounting policy); or</p> <p>(b) a change of the measurement technique applied to achieve the same underlying measurement objective (which would be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p>	<p>BC5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개정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식별한 모든 적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개정은 다음 중 어떤 원인 때문에 변경이 발생하는지를 모든 상황에서 명확히 하지는 못할 수 있다.</p> <p>(1) 측정 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회계정책의 변경일 것임)</p> <p>(2) 측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법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회계추정치 변경일 것임)</p>

IAS 8 결론도출근거 개정	제1008호 결론도출근거 개정안
<p>BC58 However, the Board concluded that when any uncertainty remains, it could be helpful for an entity to consider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35. That requirement states that when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a change in an accounting policy from a change in an accounting estimate, the entity treats the change as a change in an accounting estimate.</p>	<p>BC58 그러나 IASB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경우 문단 35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규정에서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p>
Transition	경과규정
<p>BC59 The Board concluded that requiring an entity to apply prospectively the 2021 amendments appropriately balances expected benefits and costs. In particular, the Board assessed that the benefits of requiring an entity to apply the amendments to changes that occurred in a prior period would be minimal. Such changes would generally be non-recurring and restatement of comparative information would often not provide more useful trend information for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p>	<p>BC59 IASB는 2021년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면 예상 효익과 원가의 균형이 적절히 유지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IASB는 개정 내용을 과거 기간에 발생한 변경에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의 효익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한 변경은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일 것이며 비교정보의 재작성은 종종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추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p>

‘accounting estimates’ 용어의 선택*에 따른 K-IFRS 제1008호 추가 개정 개정안

*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V. 용어의 선택에 따라 ‘accounting estimates’를 ‘회계추정치’로 번역하였다.
이에 따라 IAS 8 개정 범위는 아니지만,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다음의 기준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현행 K-IFRS 제1008호	K-IFRS 제1008호 추가 개정 개정안
<p>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정책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u>의</u>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p>	<p>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정책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u>치</u>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p>
<p>3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u>의</u>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p>	<p>3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u>치</u>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p>
<p>5 ...</p> <p>전진적용: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p> <p>(1) 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p> <p>(2) 회계추정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 회계추정<u>의</u> 변경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p>	<p>5 ...</p> <p>전진적용: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u>치</u>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p> <p>(1) 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p> <p>(2) 회계추정<u>치</u>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 회계추정<u>치</u> 변경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p>

현행 K-IFRS 제1008호	K-IFRS 제1008호 추가 개정 개정안
<p>35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 <u>의</u>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 <u>의</u>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 <u>의</u> 변경으로 본다.</p>	<p>35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 <u>치</u>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 <u>치</u>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 <u>치</u> 변경으로 본다.</p>
<p>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 <u>의</u>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 <u>의</u>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p> <p>(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p> <p>(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p>	<p>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 <u>치</u>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 <u>치</u>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p> <p>(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p> <p>(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p>
<p>37 회계추정 <u>의</u>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 <u>을</u>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 <u>의</u> 변경효과를 인식한다.</p>	<p>37 회계추정 <u>치</u>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 <u>치</u>를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 <u>치</u> 변경효과를 인식한다.</p>
<p>39 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 <u>의</u>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39 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 <u>치</u>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현행 K-IFRS 제1008호	K-IFRS 제1008호 추가 개정 개정안
<p>54F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6과 문단 11(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과 문단 11(2)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p> <p>...</p>	<p>54F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6과 문단 11(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과 문단 11(2)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u>치</u>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p> <p>...</p>
<p>BC3 이 기준서에는 개정 전 IAS 8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IASB의 의도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u>의</u> 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개정 전 기준서의 모든 규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8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p>	<p>BC3 이 기준서에는 개정 전 IAS 8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IASB의 의도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u>치</u> 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개정 전 기준서의 모든 규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8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p>
<p>회계추정<u>의</u> 변경효과에의 인식</p>	<p>회계추정<u>치</u> 변경효과에의 인식</p>
<p>BC32 공개초안은 회계추정<u>의</u> 변경효과를 다음과 같은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개정 전 IAS 8의 규정을 예외</p>	<p>BC32 공개초안은 회계추정<u>치</u> 변경효과를 다음과 같은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개정 전 IAS 8의 규정을 예외</p>

현행 K-IFRS 제1008호	K-IFRS 제1008호 추가 개정 개정안
<p>없이 유지한다고 제안하였다.</p> <p>(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p> <p>(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p>	<p>없이 유지한다고 제안하였다.</p> <p>(1)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p> <p>(2)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p>
<p>BC33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회계추정의 모든 변경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업의 자본이 결과적으로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상황의 경우 문단 BC32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p>	<p>BC33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회계추정<u>치</u>의 모든 변경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회계추정<u>치</u> 변경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업의 자본이 결과적으로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회계추정<u>치</u> 변경효과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상황의 경우 문단 BC32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p>

관 련 법 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기준)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③ (생 략)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⑦ (생 략)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위탁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②~⑦ (생 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